



Analyst

권순우

soonwoo@sk.com
02-3773-8882

자동차

3월 미국 자동차 판매 - 예상보다 높은 수요 성장

3월 미국 자동차 판매 165.3 만대(YoY +6.9%), SAAR 1,749 만대 기록
업체별로는 VW(YoY +17.8%), GM(YoY +15.7%), FCA(YoY +13.5%)가 산업평균을 상회하는 성장, 반면 닛산(YoY -3.7%), 현대(YoY -11.2%)가 감소 기록
신규 투입된 Kona 의 판매와 내수에서의 싼타페/K3 의 호조를 감안하면, 신차투입이 본격화되는 2 분기 이후부터 부진했던 현대/기아차의 미국 점유율 회복 기대

3월 미국 자동차 판매 165.3 만대(YoY +6.9%), SAAR 1,749 만대 기록

- 3 월 미국 자동차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6.9% 증가한 165.3 만대로 기존 시장 예상치를 상회. 계절조정연환산판매(SAAR) 기준으로는 1,749 만대를 기록하며 2 월 1,712 만대에서 증가하는 모습 (<그림 1>)

- 차급별로 Car 판매는 Mid-size(YoY -13.4%)의 계속된 부진이 크게 작용하며 전년동기 대비 -9.2% 기록. 반면 Light Truck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16.3% 증가했는데, Cross-over(YoY +27.0%), Pickup(YoY +7.9%), SUV(YoY +6.6%), Minivan(YoY -7.4%)로 Cross-over 의 큰 폭 성장 (<그림 2>)

- ALG 기준 산업평균 인센티브는 3,750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3,472 달러 대비 +8.0%, 전월 3,727 달러 대비 +0.6% 증가(<그림 5>)

- 산업수요의 증가는 영업일수가 전년 27 일에서 28 일로 하루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, 2 분기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수요의 개선과 업체들의 신차 출시 효과도 기여

- 아직까지 절대적인 재고 레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증가와 동반된 수요가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, 생산량/수입량의 감소와 함께 재고의 축소가 수반되는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경쟁 심화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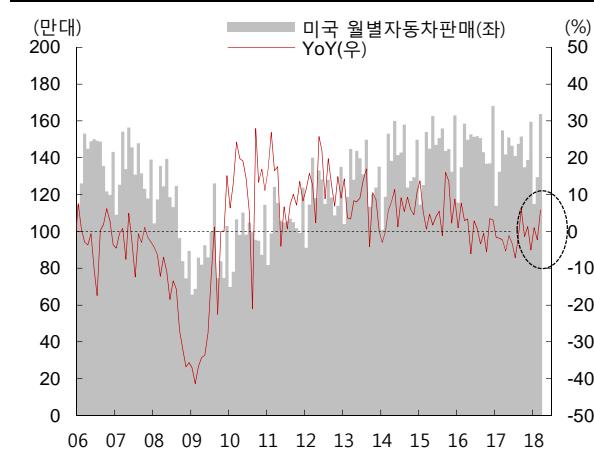
업체별 판매

- 업체별로는 VW(YoY +17.8%), GM(YoY +15.7%), FCA(YoY +13.5%)가 산업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을 기록, 반면 다행(YoY -1.8%), 닛산(YoY -3.7%), 현대(YoY -11.2%)가 감소 기록하며 판매실적이 엇갈린 모습(<그림 3,4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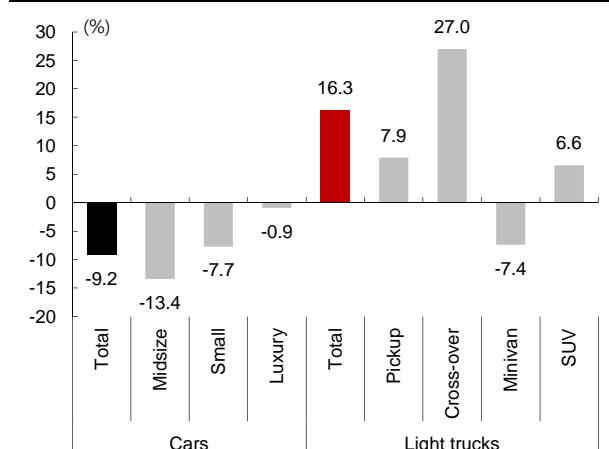
- 현대차는 투싼(YoY +31.4%)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, 쏘나타, 엑센트의 판매부진이 이어지며 전년 대비 -10.9% 감소한 61,538 대 판매(제네시스 판매 포함). 기아차는 스포티지(YoY +41.7%)와 쏘렌토(YoY +3.6%)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+2.5% 증가한 50,645 대 판매(<표 2>)

- 현대/기아차의 경우 Mid-size 시장의 수요감소에 따른 판매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. 다만 신규 투입된 Kona 가 2,360 대의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고 Ioniq 의 성장(YoY +410.4%), 내수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싼타페와 K3 의 판매상황, 전년 대비 기저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하는 2 분기부터 점진적인 판매 성장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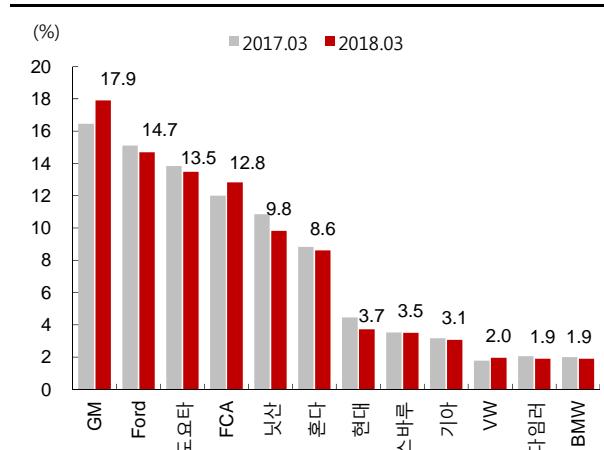
<그림 1> 미국 월별판매 - 전년 동기 대비 0.9% 증가한 11월 판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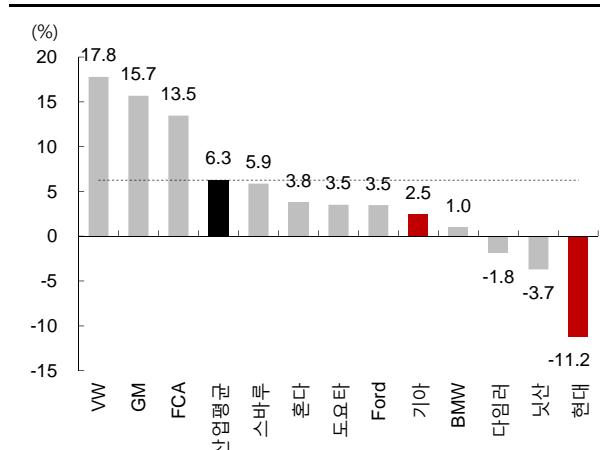
<그림 2> 세그먼트별 판매 - Mid-size 의 부진은 지속



<그림 3> 주요 업체별 점유율 - 3월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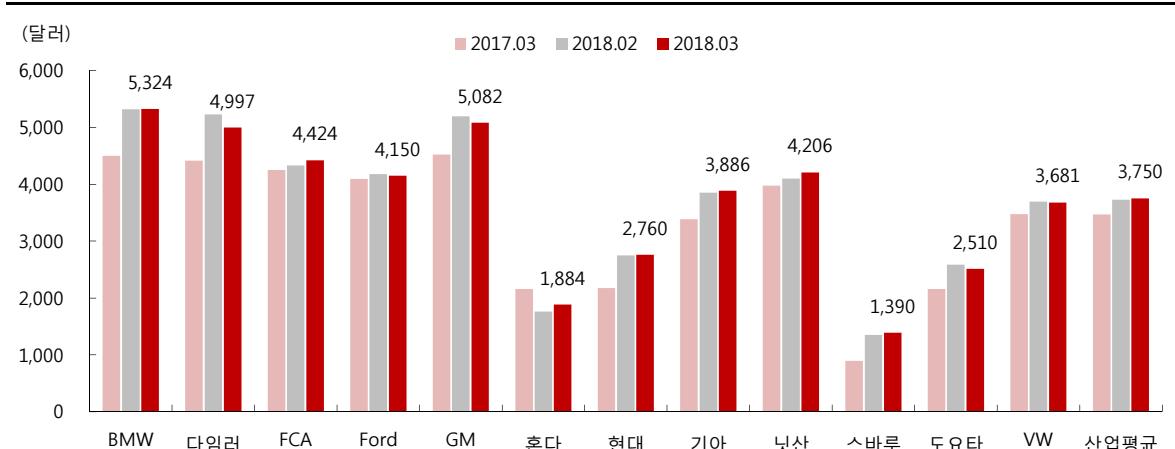


<그림 4> 전년 동기 대비 업체별 판매 - 3월 기준



자료: Automotive News, SK 증권

<그림 5> 업체별 인센티브 - YoY +8.0%, MoM +0.6%



자료: Automotive News, SK 증권

<표 1> 현대차 모델별 미국 판매

	2017.03	2018.03	YoY
Accent	4,349	2,909	-33.1%
Azera	380	141	-62.9%
Elantra	25,063	17,323	-30.9%
Kona	0	2,360	
Santa Fe	11,446	11,401	-0.4%
Sonata	15,357	11,098	-27.7%
Tucson	8,985	11,806	31.4%
Veloster	1,386	1,445	4.3%
Ioniq	327	1,669	410.4%
G80	1,347	1,049	-22.1%
G90	408	337	-17.4%
Total	69,048	61,538	-10.9%

자료: 현대차, SK 증권

<표 2> 기아차 모델별 미국 판매

	2017.03	2018.03	YoY
Rio	1,246	2,147	72.3%
Forte	10,289	9,381	-8.8%
Optima	10,204	8,010	-21.5%
Cadenza	437	767	75.5%
Stinger		1,555	
K900	43	37	-14.0%
Soul	8,426	8,849	5.0%
Niro	2,704	2,478	-8.4%
Sportage	5,560	7,880	41.7%
Sorento	7,751	8,027	3.6%
Sedona	2,769	1,514	-45.3%
Total	49,429	50,645	2.5%

자료: 기아차, SK 증권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(권순우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팀당사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 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(2018년 4월 4일 기준)

매수	89.36%	중립	10.64%	매도	0%
----	--------	----	--------	----	----